



제3차 LA 글로벌 복음통일 컨퍼런스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렸다. 한반도 복음통일을 위해 기도했다. ©기독일보

이용희 교수 "복음통일은 선택 아닌 사명"

제3차 LA 글로벌 복음통일 컨퍼런스, 통일 목적은 복음 전파, 북한은 공산주의 넘어 수령을 우상화한 신정체제

제3차 LA 글로벌 복음통일 컨퍼런스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 가운데, 16일 저녁에 이용희 교수(에스더기독교대 대표)가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강연하며 북한 복음화와 복음통일을 위한 교회의 사명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북한의 공식 교회로 알려진 붕수교회의 실상을 소개하며 "북한의 종교 정책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를 선전하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붕수교회 리성숙 목사의 과거 인터뷰를 언급하며 "과학의 시대인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사례가 있었다"며 "북한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조차 하나님보다 김일성을 절대적 존재로 가르치는 현실이다"라고 했다.

이어 북한 사회를 "공산주의 국가를 넘어 수령을 신격화한 신정국가"라고 규정했다. 그는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실제로는 김일성 일가를 절대화하는 신정국가로 변했다고 평가한다"며 "북한에서는 헌법보다 수령의 말이 더 높은 권위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일성 우상화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김일성 탄생 100주년 행사와 대규모 동상 건립 등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식량난으로 고통받던 상황에서도 막대한 국가 예산을 우상화 사업에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출애굽기 6장 7절과 이사야 42장 8절 등을 예로 들며,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이신데 북한은 김일성을 해방자이자 구원자로 만들었다"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는 우상숭배가 국가 시스템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 북한 선교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예수님께서는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말씀하셨다"며 "오늘날 김정은 정권이라는 강도를 만난 북한 동포들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했다.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탈북민들을 만나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인도적 지원이 실제 주민들에게 전달되는가 하는 문제였다"며 "북한 주민에게 전달되지 않는 지원은 오히려 독재체제를 연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교회의 무관심을 경계하며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을 때 왜 관심 갖지 않았느냐'는 책망보다 '압박감을 건널 때 나를 도와주었다'는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고 했다.

그는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예수 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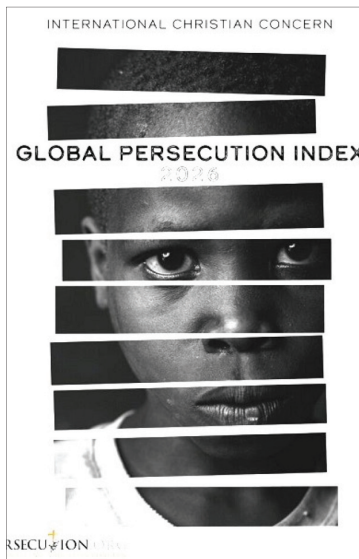
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라며 "복음통일은 정치적 통일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위한 통일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디모데전서 5장 8절과 로마서 9장 1~3절을 예로 들어 "성경은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족을 돌보라고 말씀한다"며 "같은 민족인 북한 동포를 위한 책임 역시 선택이 아니라 성도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1995년 분단 50주년부터 북한 해방을 위해 기도해왔다고 소개하며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의 눈물과 희생이 함께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고 했다.

그는 탈북민 출신 사역자의 간증도 소개했다. 이 교수는 "한 탈북민 사역자가 한국 교회에 출석했지만 북한을 위한 기도와 선교를 전혀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그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신에게 북한을 위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고백했다"고 전했다.

토마스 맹 기자 → 3면에서 계속



박해는 국경을 넘고 기술을 입고, 법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2026년 전 세계 3억 8천만 명이 상의 기독교인들이 높은 수준의 박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 세계 기독교인 약 7명 가운데 1명꼴에 해당되는 규모다. 중동과 아프리카,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폭력과 테러, 납치와 살해가 이어지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는 법률과 행정 규제, 디지털 감시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종교 통제가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기독교 인권단체인 국제기독교연대(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ICC)가 최근 발표한 2026 글로벌 박해 지수(Global Persecution Index)에서도 확인된다. 이 보고서는 단순히 어느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 박해를 받았는지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박해의 방식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과거 박해는 교회를 폐쇄하고 목회자를 체포하며 성경을 압수하는 등 물리적 탄압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디지털 감시와 법률 규제, 국경을 넘어선 압박이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강혜진 기자 → 12면에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 병크법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래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ADU 전문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Solar & Roof 집수리 일체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26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바로 상담해 보세요"
K-Urban Builders 213-310-1800
K-Urban Like CSLB # 854389

교회·학교·커머셜 빌딩·비영리단체를 위한 특별한 기회!

교회및비영리단체도 태양광설치비의 최대 40%를 현금으로 돌려받으세요!

연방정부의 DirectPay 프로그램으로 교회도 현금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체결·설치중인 교회

YNIC 나성영교회 YOUNG NAK CHURCH OF L.A.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Fax. 323-227-0718
https://youngnak.com/

대흥장로교회 Daehung Presbyterian Church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el. 310-719-2244
http://www.dkpc.org

코너스톤교회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el. 310-530-4040
http://www.cornerstonetv.com

B T S SOLAR DESIGN 213-500-8000 2027년 말 비영리단체 지원 인센티브가 종료! 지금 시작해야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및 교회를 위한 맞춤형 태양광 솔루션 btssolardesign@gmail.com www.btssolardesign.com

강동완 교수 “북한은 거대한 감옥...억류 북한군 위해 기도해야”

육신의 생명과 사회정치적 생명 구분... 사회정치적 생명은 수령과당을 통해서만 유지

제3차 LA 글로벌 북음통일 컨퍼런스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렸다. 컨퍼런스 셋째 날인 16일에는 동아대학교 강동완 교수가 강사로 나서 북한의 실상과 통일선교의 필요성을 주제로 강연했다.

강 교수는 먼저 북한 사회를 “거대한 감옥”이라고 표현하며 북한 주민들의 현실을 소개했다. 그는 “북한은 흔히 ‘Life in a Prison State(감옥 국가)’라고 불린다”며 “북한과 중국의 국경에는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고, 주민들의 삶 자체가 거대한 감옥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우상화 체제에 대해 “북한의 모든 마을에는 반드시 영생탑이 세워져 있으며 대형 모자이크 벽화가 설치되어 있다”며 “밤이 되면 일반 주민들의 집은 어두워도 영생탑과 선전시설에는 불이 밝혀진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경제 현실에 대해서도 “북한이 태양광 발전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첨단 시설이 아니라 전력난을 견디기



참석자들이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들의 한국 송환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기독교일보

위한 최소한의 수준”이라며 “대부분의 가정은 아직도 제대로 된 유리창조차 없는 경우가 많고, 거리에서는 소달구지와 함께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선전 문구를 쉽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는 “북한 경제는 여성들의 생계 활동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여성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장마당을 오가며 무거운 식량가방을 메고 살아간다. 암묵강에서는 지금도 조선시대의 뗏목과 비슷

한 유별공이 사용되고 있으며, 양강도 주민들은 장작을 마련하고 빨래를 하는 등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강 교수는 북한 체제의 사상교육도 설명했다. 그는 “세상에 부럼없어라’는 북한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노래”라며 “북한은 인간에게 육신의 생명과 사회정치적 생명이 있다고 가르치며, 사회정치적 생명은 수령과당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고 철저히 세뇌한다”고 말했다.

특히 통일선교의 이유를 강조하

며 “어머니가 공산주의로 철저히 무장해야 자녀도 공산주의자로 키울 수 있다는 것이 북한의 교육”이라며 “지금도 수많은 북한의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죽어가고 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통일선교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한국 사회 일각에서는 ‘남북 두 국가 체제로 가도 된다’, ‘나중에 여건이 되면 통일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북음을 전해야 할 사명은 지금 우리

앞에 있다”고 했다.

강 교수는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들에 대해서도 말하면서, “우리는 늘 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주목하며 기도한다”며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억류된 북한 청년 두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키이우는 지금도 계속 공격을 받고 있으며 비공식적인 소식에 따르면 이 두 명의 포로도 다른 곳으로 이동됐다고 한다”며 “그들은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기며 지금까지 살아왔고, 하나님께서 이 두 형제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고 전했다.

특히 “대한민국이 ‘두 개의 국가’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도 충분히 개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연을 마무리하며 “Save Them, Save Freedom’의 마음으로 기도해 달라”며 에스겔 16장 6절을 인용해 “피투성이가 되어 버려진 생명을 향해 ‘살아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북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토마스 맹 기자

베델교회 황모세 목사 청빙 결정

얼바인 베델교회(김한요 목사)가 지난 7월 18일 열린 정기제직회를 통해 황모세 목사를 제5대 담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정했다.

교회는 황 목사가 말씀과 복음에 기초한 목회, 교회와 가정을 잇는 온세대 목회, 다음세대를 세우는 사역, 디아스포라 교회의 선교적 사명 등 베델교회가 추구해 온 목회 비전을 이어갈 책임자라는 확신 가운데 청빙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모세 목사는 바이올라대학교에서 학사를, 탈봇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를, 고든콘웰신학교=에서 신학 석사를 취득했으며, 현재 리버티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황 목사는 2007년부터 2022년까지



황모세 목사. ©kcpc.org

지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사역했으며, 2022년부터 현재까지 와싱턴중앙장로교회에서 부목사와 장년공동체 목사, 담임목사 목회비서로 섬기고 있다. 가족으로는 아내(김수진)와 세 자녀(이레, 로희, 성울)가 있다. 조셉 리 기자

CPU, 세계전문인선교회와 MOU 체결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 CPU)가 7월 13일 세계전문인선교회(PGM, 국제대표 호성기 목사)와 교육선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PGM측 대표로 호성기 국제대표(필라안디옥교회 원로목사)를 비롯해 안디옥열방교회 고대는 담임목사, 안디옥시티교회 박신희 담임전도사가 참석했으며, 이상명 총장과 강정자 교무처장(CAO), 김루빈 부총장(CFO)이 함께 자리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학 교육과 세계 선교라는 공동의 사명 아래, CPU의 학문적 역량·교육 경험과 PGM의 세계 선교 현장 네트워크를 결합해 상호 발전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CPU가 PGM과 교육선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 CPU 제공

특히 PGM이 협력하고 있는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네팔, 중국, 멕시코 유카탄 등지의 현지 신학교 발전을 위한 학문적 자문은 물론, 향후 아시아 지역으로도 협력의 지경을 넓혀갈 계획이다.

이상명 CPU 총장은 “지경을 넓혀 아시아와 열방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거룩한 길에 CPU와 PGM이 함께 걸어가 수 있어 참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민선 기자

베델교회, 신학 통해 불확실성 시대 조명

베델교회(김한요 목사)가 오는 7월 31일(금)부터 8월 2일(주일)까지

본당에서 ‘제10차 한여름의 시원한 신학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신학강좌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조명하다’를 주제로 노진준 목사, 박성일 목사(기쁨의교회 담임, 웨스트민스터신학교 변증학 겸임교수), 정갑신 목사(예수

향남교회 담임목사)가 메시지를 전한다. 7월 31일(금) 오후 7시 30분에는 노진준 목사가 강의하고, 8월 1일(토)에는 오전 6시부터 박성일 목사가 ‘불확실한 가정’, 정갑신 목

사가 ‘불확실한 관계’를 주제로 강의한다. 8월 2일(주일)에는 노진준 목사, 박성일 목사, 정갑신 목사가 1-3부 예배에서 설교할 예정이다. 문의 : 949-307-3557

**그레이스미션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재단이사장 한기홍 박사
총 장 최규남 박사

복음을 품고

열방을 향해!

학 사

- 신학 (BATH)
- 기독교상담학 (BACC)

석 사

- 목회학 (MDiv)
- 기독교 교육학 (MACE)
- 선교학 (MAICS)
- 기독교 상담학 (MACC)

박 사

- 선교학 (DMiss)
- 교차문화학철학 (PhD in ICS)
- 교육학철학 (PhD in ES)
- 상담심리학철학 (PhD in CP)

International Track

- English Track
BATH, MDiv, MACE, PhD in ICS, DMiss
- Chinese Track
BATH, MDiv, PhD in ICS, DMiss
- Spanish Track
BATH, MDiv
- Indonesian Track
BATH, MDiv

교육 인가 기관



2026학년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 입학 혜택 |

- 유학생 I-20 발행
- 선교사 및 목회자 장학금
- 연방정부 학비지원 (FSA)
- 통신(Online)수업을 통한 학위 취득 가능
- eBook Library Service 제공

**| 입학 원서 접수 |**
Admission Application

**| GMU 웹사이트 |**
www.gm.edu

**그레이스미션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www.gm.edu

admissions@gm.edu

(714) 525-0088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한인 기독교실업인 “신앙과 실력 겸비한 다음세대 리더 세운다”

KCBMC 장학금 수여식

남가주 기독교실업인회(KCBMC)가 제5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미래를 이끌어 갈 크리스천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제정치학자 이춘근 박사의 특별강연도 함께 열렸다.

행사는 1부 장학금 수여식과 2부 특별강연으로 진행됐다.

예배는 남가주교협 회장 김은목 목사의 기도로 시작됐으며, 황선철 재단이사장이 인사말을 전했다. 황 이사장은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주셨기에 가능한 일이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남가주교협과 오렌지카운티교협, 연세대학교 남가주 동문회를 비롯해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오윤호 서부총연 총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여러분이 받는 장학금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귀한 선물”이라며 “가정과 교회, 사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리더로 성장하고, 학문뿐 아



© KCBMC 제5회 장학금 수여식 개최

니라 정직과 사랑, 섬김을 실천하는 인재가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CBMC는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장하는 선교단체”라며 “각자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훗날 또 다른 다음세대를 세우는 리더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축사를 맡은 KBC 기독교방송 대표이자 KCBMC 고문인 한기형 원로목사는 “이처럼 귀한 장학운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대한민국도 어려운 시절 인재를 키우는 일에 힘썼기에 오늘의 발전

을 이루었다. KCBMC가 심은 믿음의 씨앗 역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양자컴퓨터를 전공하는 학생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 모습을 보며 미래의 희망을 보았다”며 “이 장학운동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돼 더 많은 교회와 기관들이 어려운 청년들을 세우는 일에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동환 장학위원장은 “지난 5년 동안 모두 66명의 학생에게 총 8만6천 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했다”며 “장학금의 목적은 금액이 아

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재능으로 서로 협력해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학업 성적과 가정환경, 신앙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모두 9명의 장학생을 선발했으며, 각각 1천 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가장 큰 감동을 전한 순서는 장학생 대표 에스더 민주 리(Esther Minju Lee) 씨의 답사였다.

침례신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으며 공중보건학을 가르치는 교수인 그는, 싱글맘이기도

하다. 현재 아버지가 전립선암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학업과 강의, 자녀 양육, 부모를 돌보는 일과 통역, 재정적 부담까지 감당하는 하는 막막한 시간 가운데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였고, CBMC의 따뜻한 후원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서비스와 예방의학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드는 지도자를 세우고 싶다는 비전을 소개하며 “CBMC가 일터를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려는 사명과 제 삶의 방향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교육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며, 참된 리더십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며 “오늘 제게 심어주신 이 귀한 씨앗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정직과 사랑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희망을 전하는 리더가 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민선 기자

강훈 기자의 교회 탐방

좋은 이웃으로 세상을 섬기는 좋은이웃교회

좋은이웃교회(손민호 목사) 예배는 찬양단의 찬양으로 시작한다. 4~50대로 구성된 찬양단이다. 찬양을 이끄는 홍 다니엘 전도사는 성숙한 신앙인이다. 독립기념일 연휴로 출타자가 많았지만, 은혜 가득한 예배였다.

손민호 목사는 성도들에 실천력 있는 믿음을 강조한다.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실천력 부족으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고 세상을 향한 영적 권위와 영향력을 잃었다고 믿는다.

손 목사는 좋은이웃교회가 지역 사회에서 선한 사마리 사람 같은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하여 목회역량을 집중한다.

그는 수년전 은퇴하시려는 선임 목사님 뜻을 따라 목회를 시작했다. 그러나 여러 사정이 여의찮았다. 성도들은 흩어졌고 교회가 어려워졌다. 이런 위기에서 신동호 장로님 가

정과 권태남 안수집사님 가정 그리고 이재영 집사님의 동역과 지지는 큰 힘이 되었다.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는 이런 동역자들의 협력에 힘입어서 개척하는 마음으로 목회했고, 하나님 은혜로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며 오늘의 좋은이웃교회가 되었다.

손민호 목사는 좋은이웃교회 담성도들이 지역 사회를 섬기는 일을 기쁘게 생각한다. 실천적 신앙을 강조하는 것도 세상에서 좋은 이웃이 되라는 뜻이다.

이런 담임 목사의 뜻을 잘 실천하는 성도가 황금연 권사다. 늘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황 권사는 마라톤을 즐기며 “삼천리 마라톤”에 소속되어 활동한다. 손 목사는 이 삼천리 마라톤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응원한다.

좋은이웃교회와 손민호 목사는



좋은이웃교회의 예배 장면.

이웃 교회와 이웃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도 좋은 이웃이 되기를 사모한다. 그래서 협력 사역과 연합 사역에도 적극적이다. 더섬기는교회(김영일 목사)와 협력하여 두 달에 한번씩 연합 기도회를 갖고 있으며, 정년회 사역과 해외 선교도 이웃교회와 동역하고 있다. 2027년 신년 특별세

벽기도회도 이웃교회와 연합 집회로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다.

좋은이웃교회는 범사에 좋은 이웃이 되기를 사모하며 교회의 힘을 모은다.

올해 “강권하여 내집을 채우라!”라는 표어를 내걸고 전도에 집중하는 이유도 좋은 이웃이 되기를 사모

하기 때문이다.

좋은이웃교회는 나눔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친다. 곧 나눔 준비가 되어 세상을 맘껏 섬길 수 있기를 바라며 손 목사와 성도가 힘을 모은다.

손민호 목사는 안양의 좋은이웃교회(김윤석목사)에서 목회 수련을 받았다. 이후 남가주 건강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였다.

성결대학교에서 신학공부(BA)를 시작하여 목회학 석사(M. Div) 과정을 마치고 신학 석사(Th. M)과정 중에 도미하여 아주사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그는 건강한 신학으로 성도를 양육하며 좋은이웃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있다.

강훈 기자

좋은이웃교회 주소: 4100 W Commonwealth Ave #203, Fullerton, CA 92833

문의: 213-905-9155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홀리스 사역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차량을 도내이선에 주세요.)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
34191 Harvard rd Newberry springs ca 92384

김영길 목사의 가슴으로 읽는 성경

지친영혼을 깨우는 아침 10분 처방전

큐알코드 촬영 후 구독신청해 주세요

영혼을 위한 아침 처방전(Morning Prescription)
[복용법] 매주 월/수/금 아침, 출근길이나 조용한 시간에 복용하세요.
[효능] 불안 완화, 마음의 편안, 영적 회복

Youtube.com / @Youngkingamsa

담임목사 청빙공고

몬트레이한인제일장로교회

Korean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Monterey

캘리포니아 몬트레이 지역에 위치한 본 교회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교단에 소속한 교회로서 성경적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고자 힘써 노력해 온 교회입니다. 목회의 연속성을 있고, 다음 세대를 위한 목회 비전을 가지고 섬겨주실 담임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하고자 합니다.

1. 자격 요건

- 1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교단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 2 정규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M.Div) 이상 학위 소지자
- 3 안수 후 담임목사 또는 부목사 5년 이상의 목회 경험에 있으신 분
- 4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합법적으로 거주 가능하신 분)
- 5 한어/영어 사역 가능하신 분

2. 제출 서류

- 1 이력서(가족사진 첨부) / 최종 학력 증명서 / 목사 안수 증명서
- 2 자기소개서(신앙 고백, 목회 철학, 향후 목회 계획, 가족 소개)
- 3 최근 설교 2편, 영어로 자기 소개 2분 영상 (YouTube 영상 제출시에는 링크로 첨부)
- 4 추천서 2통(목회자 1통, 지인 1통)

3. 제출 방법

- 제출 기한: 2026년 10월 15일까지
-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mkfpchurch@gmail.com (모든 서류는 e-mail로만 받습니다)

4. 기타 사항

- 1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고 청빙 절차 종료 후 즉시 폐기됩니다.
- 2 교회 홈페이지: mkfpc.org

285 B Carmel Ave, Marina, CA 93933

전화_ (831) 384-4894, 384-8367

제출 기한: 2026년 10월 15일

mkfpchurch@gmail.com

mkfpc.org

285 B Carmel Ave, Marina, CA 93933

(831) 384-4894

TOP7



센터메디컬그룹

미스트롯4

센터메디컬그룹 회원이라면
무료로 관람하실수 있습니다



미스트롯 4 TOP7이 방송에서 큰화재를 모았던 무대를 미국 LA 에서 다시 선 보입니다. 추억과 향수를 자극하는 트로트의 감동을 센터메디컬그룹이랑 함께 나누세요

- 

공연일시 8월 22일 (토) 오후 2시 & 6시 30분
총 2회 공연
- 

공연장소 Wilshire Ebell Theatre 4401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 

티켓예약 7/20 (월) ~ 8/7 (금)

회원본인 1 매 + 동반 1 매 (총 2매 무료)

불참 및 공연 당일 티켓 반납은 모두 노쇼 (No-Show)로 간주되며, 추후 공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여 뜻깊은 시간을 보내세요
(2회 공연 중 한공연만 예약가능합니다)

센터메디컬그룹 문의 / 티켓 예약 연락처
888 - 847 - 3098

문의시간 : 9:00 AM ~ 5:00 PM

中, 탈북난민 강제복송, 北 만행 비호, 전 세계 리더?

탈북난민 강제복송 반대 기자회견, 탈북민 석방, 난민 지위 보장, 제3국 안전 이동 허용 요구

탈북난민 강제복송을 막아달라는 외침이 중국대사관 앞에서 이어졌다. 탈북민들과 북한인권운동가들은 7월 2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명동 중국대사관 입구에서 탈북난민 강제복송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탈북민 강제복송반대 범국민연합’ 주최로 강제복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바른교육교수연합 등이 함께한 기자회견에서는 참사랑학부모연합 심혜경 공동대표의 배경 설명과 국민의례 후 탈북민 이선희 여사(탈북민자유연대)를 비롯해 북한인권통일연대 홍성주 공동대표, 탈북민강제복송반대세계연합 최병문 공동대표,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신은숙 공동대표 등이 발언했다.

이후 전국탈북민강제복송반대국민연합 이상원 공동대표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성명서에서는 “북한 김정은은 2024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이자 불변의 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 사업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해당 지시에 따라 지난 5월 북한 국가정보국(구 국가보위성)은 탈북 시도자를 현장에서 사살하라는 즉결처형 지침을 내리면서 탈북민을 ‘가장 악질적인 반체제 인물’로 규정했다”며 “김정은 정권은 월경은 이유를 막론하고 한국



▲기자회견 모습. ©범국민연합

행으로 간주하며 단순히 국경을 넘으려 했다는 의심만으로도 반체제 행위자로 몰아 극단적인 처벌을 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북한 국가정보국은 중국 공안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중국 내 탈북민들까지 추적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북한 독재정권의 반인권 정책에 공모하고 있는 실상이 드러나면서 전 세계인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성명서에서는 “탈북민들은 생존과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극심한 정치적 억압, 경제적 궁핍, 그리고 굶주림을 피해 새로운 삶을 갈망하며 국경을 넘었다”며 “그러나 중국 땅에서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희망이 아닌, 또 다른 절망과 공포”라고 우려했다.

단체들은 “중국 내 탈북민들은 강제복송당할 경우 정치범수용소 감금, 고문, 강제노동, 심지어 공개

처형에 이르는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비밀리에 강제송환을 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인도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또 “중국 내 탈북민들은 단순한 불법 이주자가 아니라 정치적 박해를 피해 자유와 인권을 찾아온 난민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이들을 경제적 불법 체류자로 규정하며 체포·억류하고 있다”며 “중국인 정부는 또 탈북민 난민지위를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유엔난민기구(UNHCR) 접근도 방해하며, 개별 망명 심사를 거부하고 있다. 탈북민들이 국제법상 난민으로 받을 수 있는 보호조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국제법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꾀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국 정부는 탈북민들을 강제 송환하거나 이들의 인권을 탄

압해 왔다”며 “중국은 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협약 당사국으로서 스스로 약속한 의무인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성명서에서는 “2024년 9월, 중국에서 복송된 여성 두 명이 ‘중국 내 탈북 여성의 한국행을 도운 혐의’로 북한에서 공개 처형되고, 동료 탈북민 9명은 무기징역을 받는 등 가혹한 처벌이 이뤄졌다”며 “지금 김정은 정권의 자국민에 대한 인권 유린은 극한에 다다르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최근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난민·망명심사 없이 탈북민을 북한에 넘기고 있다. 이는 국제인권법을 준수하고 지도해야 할 유엔 인권이사국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악행을 방기한다면, 그에 대

한 책임은 전적으로 중국에 돌아갈 뿐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 비웃음과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이러한 모습의 중국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그동안 해외 억류 탈북민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헌법과 북한인권법은 국가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할 책무를 명시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탈북민 보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수용소에서 한국으로 가기를 희망하는 두 명의 북한군 포로가 있다”며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 보낼 수 있다고 천명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왜 이들의 대한민국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중국 정부를 향해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여 탈북민의 강제복송을 중단하라 △강제 구금된 탈북민들을 모두 석방하고 UN난민 지위를 보장하라 △탈북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제3국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허용하라 등을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도 “해외 억류 탈북민 보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안전한 대한민국 입국과 인권 보장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탈북민 대표들은 기자회견 후 중국대사관에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대웅 기자

검찰, JMS 정조은에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조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최근 중간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재판을 다른 피고인들과 분리해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정씨의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구형했다.

정씨는 JMS 내에서 정명석에 이

은 ‘2인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정명석의 여신도들을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 정씨와 다른 조력자들이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명석과 함께 기소된 다른 조력자들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증인신문을 열 예정이어서 이들에 대한 결심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마친 뒤 정명석과 다른 피고인들의 사건 심리를 종결하고 오는 9월 7일 오후 2시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명석은 출소 이후인 2018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JMS 교단 내에서 ‘신앙스타’로 불린 여신도와

다른 여신도들을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정조은을 비롯한 교단 관계자들이 피해자들을 관리하거나 정명석의 범행을 돕는 방식으로 사건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정명석 등은 성폭력 혐의와 별도로 신도들에게 수련원 약속터 물을 판매해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충남 금산군 JMS 월명동 수

련원의 약속터 물에 질병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는 소문을 이용해 신도들에게 물을 판매하고 약 2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명석은 앞선 재판에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금산군 수련원 등에서 홍콩·호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들을 상대로

모두 23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해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정명석에게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이번 재판은 이 판결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성폭력 혐의와 조력자들의 범행 가담 여부 등을 다루고 있다. 이나래 기자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 편집고문

고승희, 김영길, 김재성, 김중언, 김한호, 류종길, 민중기, 박기호, 송정명, 신성욱, 이상명, 이종용, 임성진, 정우성, 진유철, 한기홍

■ 자문위원

강태광, 고광선, 고창현, 구경모, 구봉주, 국윤권, 김중규, 류응렬, 박은성, 박일서, 오영찬, 우영화, 최현규, 한현중, 써니김

■ 발행인 :

이인규

■ 편집국장 :

맹창현

■ 고문변호사 :

정찬용

■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 대표전화 :

(213) 739 - 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주 소 :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 이사장 :

폴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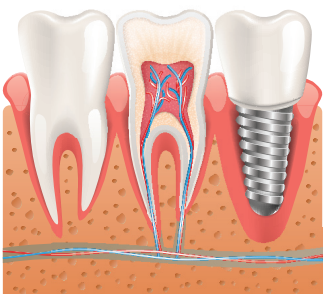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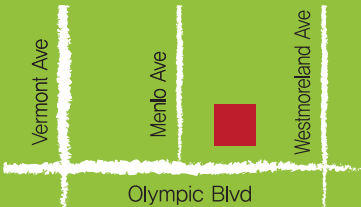
-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에스더 이 원장

올림픽 치과
OLYMPIC DENTAL CENTER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자신보다

가족 걱정을 늘 먼저 하는 당신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SMG는 진료 이전에
당신의 삶을 생각합니다.
수많은 의사와 병원,
보험 네트워크를 연결한 이유도
결국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한 사람,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30년동안 당신을 지켜온 SMG 기록

5,500명의 의료진 | 폭넓은 병원 및 보험사 | 우수 의료 제공자



800.611.9862
SMG 카카오톡채널에 방문하세요!

SMG
서울메디칼그룹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 광고에서 사용된 지표는 SMG가 2025년에 남가주 지역의 한인 주치의와 전문의 네트워크 규모에 대해 조사한 내부데이터에 기반한 것입니다. 서울메디칼그룹은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다양한 건강보험과 함께 독립된 의사 네트워크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혜택과 네트워크 규모는 각각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헬스 플랜과 지역에 따라 다양합니다. 의료 서비스는 건강보험에 따라 제한, 제외, 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메디칼그룹 800-611-9862로 문의하십시오.

멕시코 티후아나서, 대규모 어린이 전도집회 열린다

GMC 어린이선교회 주관 어린이 전도집회, 교회·선교단체 9곳 협력, 국경 넘어 어린이 복음 전파, 성경교육과 체험활동 결합한 복음축제 리더십 세미나·현지 사역자 양성

GMC(Global Mission for Children) 어린이선교회(미주 대표 피터 김 선교사)가 주관하는 '2026 연합 어린이 전도집회'가 25일(토) 멕시코 티후아나 모랄레스 동물원에서 열린다.

이번 집회에는 미국 남가주에서 약 120명의 사역자와 봉사자들이 참여하고, 티후아나를 비롯한 멕시코 현지 교회와 가정 등 약 1,300명이 참석해 모두 1,500여 명 규모의 어린이 복음축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남가주 교회와 선교단체 등 9개 기관이 협력한다.

GMC 미주 대표 피터 김 선교사(OC우리교회)와 총무 폴 정 집사(LA온누리교회)는 "이번 집회는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여름성경학교(VBS)를 통해 복음을 접한 어린이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 말씀과 놀이, 체험을 통해 복음을 더욱 깊이 경험하도록 돕는 전도집회"라고 말했다.

"말씀을 배우고 체험하는 복음 축제"

김 대표는 "행사장에는 게임과 햄버거, 솜사탕,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공예, 사진 촬영, 인형극, 한국무용 등 약 30개의 다양한 체험부스가 운영된다"며 "모든 프로그램은 복음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성경적 메시지를 담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어린이들은 원하는 체험을 하기 전에 먼저 성경 이야기와 퀴즈, 바이블 스토리 교육을 받고 이를 통과해야 다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김 대표는 "아이들이 즐겁게 놀면



폴 정 총무(좌)와 피터 김 대표(우) ©기독일보

서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교육과 놀이를 함께 배치했다"며 "오전에는 성경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이후 다양한 체험활동을 거쳐 마지막에는 모두 함께 예배를 드리며 집회를 마무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2011년 시작...1500개 교회로 확산

GMC의 핵심 사역은 멕시코와 중남미 교회를 위한 여름성경학교(VBS) 교재 개발과 교사훈련이다. 정 총무는 "2011년부터 시작한 VBS 사역은 처음에는 60여 개 교회가 참여했지만 100개, 200개, 400개 교회로 꾸준히 확대됐고, 현재는 약 1,500개 교회가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열악한 교회들이 비용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교재와 교육자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그림 교재와 공과, 율동 영상, 교육 영상 등을 직접 제작해 USB와 PDF 파일 형태로 보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매년 새로운 VBS 주제를 선정해 말씀, 율동, 게임, 공예 프로그램까지 직접 개발하고 있으며, 교재 제작은 11월부터 시작해 다음해 초까지 인쇄와 배포를 마친

다"고 덧붙였다.

"도시보다 열악한 지역교회에 집중"

김 대표는 "GMC는 대도시보다 주일학교가 없거나 교사가 부족한 작은 교회들을 우선적으로 섬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멕시코에는 아직도 주일학교가 없고 어린이 사역을 담당할 교사가 없는 교회가 많다"며 "교사들을 교육하고 교재를 제공하면서 지금은 방문하는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세워지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교회들도 무료로 제공받은 프로그램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여름성경학교를 운영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참여 교회가 매년 증가하는 것이 무엇보다 큰 열매"라고 덧붙였다.

리더십 세미나 통해 중남미 사역자 양성

GMC는 어린이 집회

뿐 아니라 지도자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정 총무는 "매년 4월에는 멕시코와 과테말라, 콜롬비아 등 여러 도시에서 리더 150여 명이 모여 일주일 동안 함께 숙식하며 리더십 세미나를 진행한다"며 "교사 강습회와 리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현지 어린이 사역자들을 세우고 있다. 각 도시 목회자들과 리더들을 초청해 여름성경학교 운영법을 교육하고, 미국에서도 팀을 구성해 현지 강습회를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재정과 다음 세대 사역자들의 동역 절실"

대표와 총무는 앞으로의 기도제목도 전했다. 이들은 "지금까지는 모두 자비량으로 사역을 감당해 왔지만 사역 지역과 참여 인원이 계속 늘어나면서 재정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함께 사역할 젊은 사역자들과 지속적인 후원이 절실하다"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이어올 수 있었다. 지역교회들이 조금씩 마음을 모아 동역해 주신다면 더 많은 나라와 교회에 어린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GMC는 이번 티후아나 집회를 위해 참가 교회와 선교단체를 대상으로 사역 분야와 필요 물품을 사전에 접수받고 있으며, 행사 당일에는 천막과 테이블, 의자 등을 준비해 현장 운영을 지원한다. 또한 참가자들에게는 폭염에 대비한 모자와 선블록, 개인 상비약 준비를 당부했으며, 국경 통과를 위한 유효한 여권과 필요한 입국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 줄 것을 안내했다. 행사는 복음 제시와 찬양, 율동, 공예, 스포츠, 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모든 봉사자들은 행사 전후 기도회와 현장 정리에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문의: 213-880-3693(폴 정 총무) 토마스 맵 기자



지난해 어린이 전도집회 모습

7월 OC 목사회 정기 세미나 “이민교회의 현실과 미래 전망”

오렌지 카운티 목사회가 오는 7월 26일(주일) 오후 4시 효사랑선교회에서 김용철 목사를 초청해 정기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민교회의 현실과 미래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규모가 작은 한인 이민교회 목회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고, 이민교회 목회자들의 한인 이민

자들의 삶의 현장과 현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의 강사로 서는 김영철 목사는 한인 이민사와 북미 이민교회사 분야를 30여 년간 연구해온 학자로, 목회자성서연구원 원장과 오렌지카운티목사회 자문위원으로 섬기고 있다.

7월 13일 미주복음방송에서 전

행한 인터뷰에서, 정찬군 목사(OC 목사회 회장), 손태정 목사(부 이사장)는 현재 이민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로는 이민자 감소에 따른 교인 감소와 고령화, 중간세대 및 차세대 지도자 부족을 꼽았다.

OC 목사회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민목회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이민 성도들의 특성과 삶을 정

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한 작은 교회는 성도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돌보고 깊이 공감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목회자가 이민자들의 현실과 심리를 이해해야 한다며,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

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자비량 목회와 재정 문제, 큰 교회와 작은 교회의 상생 방안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즉, 재정 지원을 넘어서 인력과 교육 자원을 나누는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작은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윤준 기자

TV 기독일보 신앙간증

늘 새롭게

당신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시간!
미주 기독일보 유튜브 신앙 간증 프로그램 “늘 새롭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당신의 간증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됩니다.
인생의 고비에서, 기도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주세요.
'늘 새롭게'에 나오셔서 진솔하게 신앙간증하실 분이나
주위에 추천하실분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신청 및 문의 : 기독일보 213-739-0403 / chdailya@gmail.com

*미주기독일보 유튜브에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 'CDTV 미주 기독일보'를 검색하세요

You

Tube

中 에즈라 진 목사 “옥중 신자 8명 석방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



에즈라 진 목사가 7월 4일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 미국에 있는 가족과 재회했다. ©YouTube Screenshot

미국 독립 250주년을 앞두고 8년 만에 가족과 재회한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 에즈라 진(Ezra Jin Mingri) 목사가 중국에 수감돼 있는 교회 성도들의 석방을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진 목사는 지난 7월 초 266일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석방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베이징 시온교회(Beijing Zion Church) 지도자 및 성도 28명과 함께 중국 당국에 의해 구금됐으며, 그의 석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그의 사건을 직접 언급한 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뤄졌다.

진 목사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자신의 석방이 “중국의 신앙인들에게 새로운 장이 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중국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도관들이 나를 호송 차량으로 데려갈 때 재판을 받으러 가는 줄 알았다”며 “지하 가정교회를 이끌었다는 이유로 장기형을 예상했지만, 모든 혐의가 취하된 채 석방됐다”고 회고했다.

이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하며, 아직도 감옥에 있는 이들도 곧 같은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기도한다”며 “나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며 언제나 나를 놀라게 하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 목사는 현재도 시온교회 성도 8명과 여러 교회 지도자들이 양심수로 수감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을 “내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가장 헌신적이고 따뜻한 사람들”이라고 소개하며 “이들은 비좁은 감방에서 찜통 같은 더위 속 바닥 매트 위에서 잠을 자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어린 자녀를 가족에게 남겨둔 채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유를 되찾을 때까지 나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 목사는 중국 정부가 미등록 가정교회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중국의 수천만 명에 이르는 가정교회 신자들은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며 “그들은 단지 성경에

따라 평화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 노인들을 섬기기를 원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교의 자유는 중국 헌법이 보장하는 보편적 권리”라며 “모든 교회 성도들이 석방되고 중국이 누구나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국영 기업과 함께 민간기업을 합법화한 것처럼 국가가 관리하는 교회와 더불어 가정교회도 합법화하는 것이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풀러신학교를 졸업한 진 목사는 1989년 텐안먼 민주화 시위 이후 기독교로 개종했으며, 2007년 베이징 시온교회를 설립했다. 이후 시온교회는 중국 최대 규모의 가정교회 가운데 하나로 성장했다.

진 목사와 그의 아내는 중국 국적자이며, 자녀들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

중국 당국은 2018년 교회가 감시 장비 설치 요구를 거부하자 베이징 예배당을 폐쇄했다. 이후 시온교회는 줌(Zoom), 유튜브, 위챗 등을 활용한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으며, 최대 1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목사에 따르면 그는 약 93㎡(약 1,000제곱피트) 규모의 방에서 수십 명의 수감자들과 함께 생활했다. 낮에는 모두가 긴 의자에 앉아 있어야 했으며, 일어서기 위해서는 허락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많은 수감자들이 욕창과 피부 질환을 겪었다. 밤에는 모두가 하나의 넓은 침상에서 함께 잠을 잤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 당국이 진 목사에게 유죄를 인정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사람들이 ‘우리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며 아직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끝까지 목소리를 내야 한다. 우리 가족도 그렇게 했고, 그 결과를 직접 보았다”고 강조했다.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오픈도어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조직화된 종교를 정권 유지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미경 기자

2026 월드컵 스페인 우승 주역 로드리 신앙 고백 눈길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2026 국제 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에서 스페인이 아르헨티나를 꺾고 우승을 차지한 가운데, 우승 주역 로드리와 하프타임 무대에 오른 저스틴 비버의 기독교 신앙 고백이 주목받고 있다고 7월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스페인인 미국 뉴욕·뉴저지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이후 통산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스페인 중원을 이끈 로드리(로드리고 에르난데스 카스칸테)는 대회 최우수 선수에게 수여되는 골든볼을 받았다.

기독교 매체 디아리오 크리스티아노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로드리는 우승 직후 인터뷰에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는 자신과 팀이 이룬 성과에 대해 “저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해당 매체는 로드리의 발언을 보도하

며, 세계적인 스포츠 무대에서 정상에 오른 선수가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한 장면이라고 전했다. 로드리는 이번 대회에서 스페인의 경기 운영을 이끈 핵심 선수로 평가받았으며, 결승전 이후 대회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다.

이날 결승전 하프타임 쇼에 오른 저스틴 비버의 무대도 관심을 모았다. 저스틴 비버는 화려한 퍼포먼스보다 어쿠스틱한 분위기의 무대를 선보이며 기독교적 메시지가 담긴 곡 ‘Everything Hallelujah’를 불렀다. 이 곡은 저스틴 비버가 자신의 삶과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 담긴 곡으로 알려져 있다. 비버는 월드컵 결승전이라는 세계적인 무대에서 해당 곡을 부르며, 대중문화와 스포츠가 결합된 현장 속에서 신앙적 메시지를 전했다.

저스틴 비버는 그동안 자신의 신앙과 삶의 변화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해 왔다. 이번 무대 역시 단순한 축하 공연을 넘어, 자신이 경험한 신앙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한 장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승연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김성식 담임목사

주일에 오전 11:00
주일어린이성경공부 오후 1:30
백송찬양대 주일 오후 1:15

평일 영혼의심예배
- 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LA백송교회

백합회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김기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내세대에 오전 9:15) 새벽예배 월요일엔 01: 오전 8시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화-토) - 오전 6:0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종부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치료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dson 코너)
T. (213)386-2233

박병열 담임목사

주일에 1부: 8:30 am 주일 3부: 2:00 pm (영어편)
주일에 2부: 11:00 am 새벽예배: 화-토 (6:00 am)
교육부: 11:00 am 수요일예배: 7:00 pm

미주평안교회

“은혜로 걸어온 50년, 비전으로 걸어갈 NEXT 50년” (시 78:4)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T. (213) 381-2202 www.mijoopeacechurch.org

엘리아 김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520 James M Wood Blvd, LA, CA 90015
T. (213) 272-6031

박은성 담임목사

주일에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김지훈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분당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O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수요일종부기도회 오전 10:00 분당

OMC 중동분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OMC 소망분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coffee1@gmail.com

강지원 담임목사

주일에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서사라 담임목사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설교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김형섭 담임목사

주일에 1부 오전 8: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교동부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온라인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한현중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새벽예배 새벽 6:30
EM 주일예배 오전 10:30

LA장로교회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 407-1600

국윤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후 7:00
교육부 오전 11:30

충현선교교회

블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troll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choonghyun.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사우스 베이 지역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종교동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이항영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EM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장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가명훈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잡으며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c.org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OEM/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월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여대학생친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초주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1부예배
오전 7:00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1부예배
오전 8:2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홍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월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주일1부
오전 7:45
주일2부
오전 9:45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2부예배
9:30am
주일3부예배
11:15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일EM예배
11:00am
수요찬양집회
7:30p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정유성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c.org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가든구주재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종교기도
오전 9:3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15
토요일
오전 06: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박신웅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07:20
2부예배
오전 09:10
3부예배
오후 11:2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급한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교육부서)

수요여성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토/주일) 새벽 6:00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714) 899-9191 / oc1church.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토요새벽부흥회
토요일 오전 6:00
토요성령집회
오후 7:30 (매달 마지막 금요일)

교회학교
영아유치부, 원아동부,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수요일요일강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40
EM(Holy Wave)
오전 11:4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금요성령집회
저녁 7:30(금)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유영담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909)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 청년예배
오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 청년예배
오후 7: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요일강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최원일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622-2324, F.(909)622-1480 / inlandchurch.org

인권 개선 없으면 무역 혜택 중단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유럽연합(EU)이 파키스탄을 향해 인권과 법치주의, 거버넌스 분야에서 가시적인 개선을 보이지 않을 경우 일반특혜 관세제도(GSP+)에 따른 무역 혜택이 중단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고 7월 20일 보도했다.

유럽 집행위원회와 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공동으로 발표한 ‘2023-2025 GSP+ 이행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인권 분야에서 지속적인 후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GSP+ 규정에 따른 마지막 평가인 이번 보고서에서 집행위원회는 파키스탄이 의무 준수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다수의 분야에서 퇴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제 실종과 초법적 살인에 대한 보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파키스탄 내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파키스탄 전자범죄법(PECA)을 비롯해 반테러법, 파키스탄 신성모독법 등에 포함된 모호한 조항들이 반체제 인사, 인권 운동가, 언론인, 소수 종교인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인 보호를 위한 법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민감한 사안을 취재하는 기자들은 여전히 협박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들의 입을 막기 위한 이른바 ‘전략적 침묵 소송’이 빈번하게 동원되고 있다.

특히 파키스탄 신성모독법의 악용 문제는 이번 보고서에서 비중 있게 다뤄졌다. 파키스탄 당국은 신성모독 사건 처리를 위한 사법부의 감속 절차를 강화했다고 해명했으나,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 지연과 사법 밖의 폭력이 여전하며, 허위로 신성모독을 고발한 이들이 처벌받은 사례는 전무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보고서 조사 기간 중에는 800명이 넘는 청년들을 온라인 사기로 유인해 허위 신성모독 혐의를 씌운 범죄 조직의 존재도 확인됐다. 해당 조직은 현재 와해된 상태지만, 2026년 4월 기준으로 300명 이상의 피해자들이 여전히 억울하게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Pixabay

최근 파키스탄 정부가 단행한 헌법 개정 역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집행위원회는 이번 개헌이 군부의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법치주의를 위협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2024년 총선의 공정성 논란, 전직 총리를 비롯한 야당 인사들에 대한 무더기 구금, 그리고 민간 업무에 대한 군부의 개입 확대 등과 맞물려 파키스탄 인권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군사법원을 통한 민간인 재판 역시 국제 규약이 요구하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재판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발루치스탄과 카이벨파크툽크와 등 특정 주에서 급증하는 실종 사건, 아흐마디아 등 소수 종교인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 아동 노동 및 조혼 문제, 아프간 난민 송환 과정에서의 인권 유린 등 파키스탄 사회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인권 침해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럽연합은 파키스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GSP+ 무역 혜택을 유지하려면 확실한 행동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2027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규정에 따라 현재 혜택을 받는 국가들은 한층 강화된 지속가능성 및 거버넌스 기준을 충족하여 GSP+ 지위를 재신청해야 한다. 이에 집행위원회는 고문 방지 노력, 사형제도 개혁, 강제 실종 및 표현의 자유 억압 문제 해결을 향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파키스탄은 인권, 노동권, 환경 보호 등 27개 국제 협약을 이행하는 대가로 유럽 시장 수출 시 무관세 등 특혜를 받는 GSP+ 제도의 최대 수혜국이다. 2024년 기준 파키스탄의 대유럽 수출액은 83억 유로를 기록했으며, 유럽연합은 파키스탄 전체 수출의 28%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 시장이다.

최승연 기자

낙태 반대 소신 밝혔다가 해고 주장

사라 모스는 해고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CitizenGo

낙태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학생들의 질문에 솔직하게 답했다가 해고됐다고 주장하는 가톨릭 교사 사라 모스(Sarah Morse)를 지지하는 청원에 수만 명이 참여했다.

66세의 미국인인 모스는 스코틀랜드 아브로스 고등학교(Arbroath High School)에서 14~15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모스에 따르면 학생들은 수업 중 트랜스젠더 문제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논란이 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물었고, 낙태에 대한 질문에는 “나는 독실한 로마 가톨릭 신자이며 낙태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는 수업이 끝난 뒤 학교 간부의 면담에 소환됐고, “종교와 낙태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즉시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모스를 지원하고 있는 생명운동 단체 SPUC(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Un-born Children)는 영국 정부 지침은 교사가 학생들을 설득하려는 의도가 없는 한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SPUC는 시민운동 플랫폼 시티즌고(CitizenGO)를 통해 청원을 시작하고, 앵거스 의회(Angus Council)에 모스가 “공정하고 비례적인 절차를 보장받지 못했

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건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기사 작성 시점 기준으로 1만7천 명 이상이 서명한 이 청원은 교사들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신념(protected beliefs)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들의 질문에 정직하게 답했다는 이유로 더 이상 처벌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모스는 현재 앵거스 의회를 상대로 고용심판원(Employment Tribunal)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심리는 오는 8월 24일 열릴 예정이다.

SPUC는 청원문에서 “학생의 질문에 양심에 따라 답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가 직장을 잃을 수 있다면, 모든 신앙을 가진 교사들은 자신의 신념을 숨기지 않으면 경력을 잃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한 명의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기독교 교사뿐 아니라 모든 종교 또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신념을 가진 교사들이 직업적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학생들에게 정직하게 답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SPUC의 존 데이건(John Deighan) 최고경영자는 이번 사건이 영국에서 사람들이 생계를 잃을 두려움 없이 자신의 신념을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스마트폰 확산이 출생률 하락

아이폰을 비롯한 스마트폰의 등장이 미국의 출산율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스마트폰이 인간관계와 사회적 행동 방식을 변화시키면서 임신과 출산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국립경제연구소(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NBER)가 공개한 위킹페이퍼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초기 보급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 일반 출산율 감소분의 약 33~52%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연구는 미국 미들버리대학 경제학자 케이틀린 K. 마이어스(Caitlin K. Myers) 교수와 연구자인 에제키엘 후퍼(Ezekiel Hooper)가 공동으로 수행했으며, 미국의 출산율이 경기침체 회복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한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의 일환이다.

연구진은 2007년 이후 미국의 일반 출산율이 약 22% 감소했지만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적 요인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구 논문 ‘아이폰은 피임 도구인가?(Is the iPhone Birth Control?)’에서 연구진은 출산율 하락을 설명하는 요인은 “영향력이 크고, 시기적으로 일치하며, 다양한 인구집단에 광범위하게 나타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전 연구에서 아이폰과 이메일, 소셜미디어가 세대 전반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변화시켰다는 분석에 주목해 스마트폰의 등장과 출산율 감소 사이의 연관성을 검증했다.

연구진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을 활용했다. 애플은 2007년 6월 29일 첫 아이폰을 출시했지만, 당시에는 미국 이동통신사 AT&T와의 독점 계약에 따라 2011년 2월까지 AT&T 네트워크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AT&T의 3G 서비스가 넓게 구축된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수년 먼저 아이폰을 사용할 수 있었고, 연구진은 이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AT&T 서비스 범위가 90% 이상인 지역과 10% 미만인 지역을 비교한 결과, 스마트폰을 조기에 사용할 수 있었던 지역에서 출생률 감소 폭이 일관되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15~19세 여성의 출생율은 스마트폰 초기 보급으로 인해 예상보다 4.5~8%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20~24세 여성의 출생도 3.2~6.6%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더 높은 연령



출처: pexels.com/ fauxels

대에서도 규모는 작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가 확인됐다.

연구진은 전체적으로 스마트폰 보급이 연구 기간 미국 출산율 감소의 3분의 1에서 절반가량을 설명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 같은 영향은 백인과 히스패닉 여성에게서는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흑인 여성에게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하지 못했다.

연구진은 이 결과가 스마트폰 확산이라는 전체적인 설명과는 다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인정했다.

또한 결혼 여부나 출산 경험에 따른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지만 교육 수준에 따라서는 일부 차이가 확인됐다.

대학 졸업자의 출생률은 약 2.1% 감소한 반면, 대학에 진학했지만 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여성은 약 5.8%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가 단순히 통신사 차이에 따른 현상이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아이폰을 제공하지 않았던 버라이즌(Verizon)과 스프린트(Sprint) 가입 지역을 대상으로도 동일한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11년 이전에는 유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해당 통신사에서도 보급되자 비슷한 출산율 감소 현상이 확인됐다. 연구진은 이를 통해 특정 통신사가 아니라 스마트폰 자체의 영향이라는 해석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구는 스마트폰이 생물학적인 임신 능력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스마트폰이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세 가지 행동 변화를 제시했다. 첫째는 대면 교류 감소, 둘째는 피임 및 생식 관련 정보 접근성 확대, 셋째는 온라인 음란물 소비 증가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직접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연구 기간 동안 미국인들의 친구와의 대면 시간이 줄고 성관계 경험 비율이 감소하고, 온라인 음란물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는 여러 통계와 일치한다.

이미경 기자

미 텍사스 홍수로 최소 2명 사망

미국 텍사스 힐컨트리(Hill Country) 지역에서 집중호우로 강물이 범람해 주택과 이동식 주택(RV)이 휩쓸려 가고 최소 2명이 사망한 가운데, 지역 교회들이 이재민을 위한 대피소를 개방하고 긴급 구호 활동에 나섰다.

현지 언론 텍사스 트리뷴에 따르면, 커빌(Kerrville)에 있는 갈보리 템플 교회는 피해 주민들을 위한 임시 대피소를 운영하고 있다.

자원봉사자 소일라 레이나(Soyla Reyna)는 16일 오전까지 약 50명의 이재민이 대피소를 찾아 생필품과 피난처를 제공받았다고 전했다. 지역 곳곳에서는 주민들이 서로의 집에 모여 침수 피해 복구를 시작했으며, 임시 대피소에서 이재민들에게 따뜻한 식사와 깨끗한 의류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 기독교 구호단체 사마리아인의 지갑(Samaritan's Purse)는 힐컨트리 지역에 재난구호팀을 긴급 파견했다고 밝혔다. 구호팀은 유발디(Uvalde) 카운티에 배치되며, 유발디 감리교회(Uvalde Methodist Church)를 거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자원봉사자들은 침수된 가재도구를 옮기고 주택 내부의 진흙을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또한 빌리 그레함 전도협회산하 신속 대응팀 소속 채플린들도 현장에 파견돼 피해 주민들을 위한 심리·영적 돌봄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마리아인의 지갑은 지난해 수주간 진행했던 구호 활동에 이어 이번에도 커 카운티(Kerr County)의 피해 규모를 조사하며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대규모 홍수 당시 구호 활동을 주도했던 커빌의 서던오크스교회(Southern Oaks Church)는 비영리단체 ‘유나이티드 인 크라이시스(United in Crisis)’ 및 지역 교회들과 협력해 이번 홍수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교회는 성명을 통해 재난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 주민들에게 심리 상담과 긴급 생활비, 각종 재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생존자와 피해 가정을 장기적으로 돕기 위해 훈련받은 자원봉사자를 연결하는 ‘크라이시스 릴리프 셰퍼드(Crisis Relief Shepherd)’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피해 주민들의 정서적·영적·생활적 회복을 단기와 장기 걸쳐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회는 긴급 구호를 위한 재정 후원이 절실하며, 모금된 기금은 상품권과 임시 주거, 긴급 교통 지원, 건축 자재 구입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홍수는 지난해 7월 같은 지역을 강타해 커 카운티에서만 119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홍수를 떠올리게 했다.

현지 방송 폭스4(Fox 4)에 따르면 이번 홍수로 최소 2명이 숨졌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지역에서 100명 이상이 사망한 참사 발생 1년여 만이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아미락주)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박종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d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예배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주일 1부 예배 8:00am / 주일 2부 예배 9:30am (각 교육부 예배)
주일 3부 예배 11:20am (각 교육부 예배)
EM(DSCP) 1부 9:30am / 2부 11:00am
한어청년부 1:30pm / 영어대학부 2pm
수요경배와찬양 (수) 7:30pm
새벽예배 평일(월-금) 5:30am, (토) 6am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 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 교회를 교회되게 ·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www.dongshinchurch.com

주일 예배 (KM) 오전 10:30 중·고등부 (Youth) 오전 10:30
주일 예배 (EM) 오전 10:30 대학청년부 (College) 오전 10:30
유년부 (K-2) 오전 10:30 중보기도 (Intercessory prayer) 오전 9:40
초등부(3-5) 오전 10:30

최현규 담임목사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 joonim0623@gmail.com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강문수 담임목사

로렘나무교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타주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 2부 오후 12: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아아 내 길에 빛이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아기돌) 오전11: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아부예배(민물채물)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모임(금) 오후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부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 2부 9:30AM 수요일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아침예배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영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1부 오후 12:30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화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nta Clarita,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mool.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영성침례 저녁 7: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주일 3부 영어예배 오후 1:00

이충환 담임목사

주안에 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T.(818)363-5887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목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 동요로온 삶 오전 9:30
화요 3,3,3 기도회 매달 둘째주 오전 10:30 목요 TEE 영육 Zoom 오후 7:30
목요 거리전도 오전 10:00 한인타운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송금관 담임목사

평강교회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T. (213)393-9136 http://pyongkang.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 10:15 (한국어, 스페리쉬)
주일예배 3부 오후 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V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삼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참회기도회 오후 7:00
토요새벽예배 오전 7:00 E.lvk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장년예배 1부: 오전 9: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회 수요일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금요일 오후 7:00

조용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일예배 7:00 PM
새벽기도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종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woorijoeunchurch.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9시 세신자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
주일 2부 예배 오전 10:45 제자훈련 주일 오후 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금요일예배 저녁 7시
Youth 오전 10:45, 오후 1시 새벽예배 오전 6시(화-금)

김광석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2011 Cade Lk, Round Rock, TX 78664
T.(512)228-1934 https://www.rkpc.net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크리스천 비즈니스

CHRISTIAN BUSINESS

학생
모집

캘리포니아 두란노대학교
B.th, Th.M, M.Div, D.Min, Th.D
coafs-07-388665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신학박사 인가 대학은 3곳**뿐입니다.

- 학교운영하실 분 \$7만불 (신학철학책 1만권 포함)
- 나성중부교회 김 호 박사 / 캘리포니아 디렉터

213-507-1933

INNEX PRO
Collision Center



아이넥스 프로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213-383-1230
2811 Leeward Ave., LA, CA 90005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송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베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FOP SERVICE, INC.
PLUMBING License# 1139798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40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꼬리뼈 통증 출혈로 앓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정력강화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 7~25 lbs - 손목 터널 증후군 침치료 가능합니다

3대째 가업 영선한의원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A, CA 90020

각종모임 주문환영(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고기, 김치만두
참쌀 오방떡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이리 주문해 주세요!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ga.com



미주 한인 목회자 10명 중 4명 ‘번아웃’

목회데이터연구소(목데연)가 미국 한인교회 목회자들의 목회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목회자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현재 영적 번아웃(소진)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약 70%는 향후 10년 안에 미국 한인교회가 쇠퇴할 것으로 전망했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21일 ‘넘버즈 343호-미국 한인교회(PCA교단) 목회 실태 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지앤컴리서치가 지난 4월 미국 PCA(미국장로교) 교단 소속 한인교회 담임목사 11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한인교회는 중소형교회 중심의 구조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기준 출석 교인 수는 ‘29명 이하’가 30%로 가장 많았으며, ‘50~99명’이 25%, ‘30~49명’이 21%로 뒤를 이었다. 전체 교회의 51%가 출석 교인 50명 미만이었고, 100명 미만 교회는 전체의 76%에 달해 교회 4곳 가운데 3곳 이상이 중소형교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목회 환경 속에서 목회자들의 영적·정서적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현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묻는 질문에 미국 한인교회 목회자의 41%는 자신이 ‘소진된 상태’(매우·약간)에 있다고 응답했다. 조사에서는 이러한 영적 소진이 충분한 휴식의 부재와 경제적 어려움 등과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 것으로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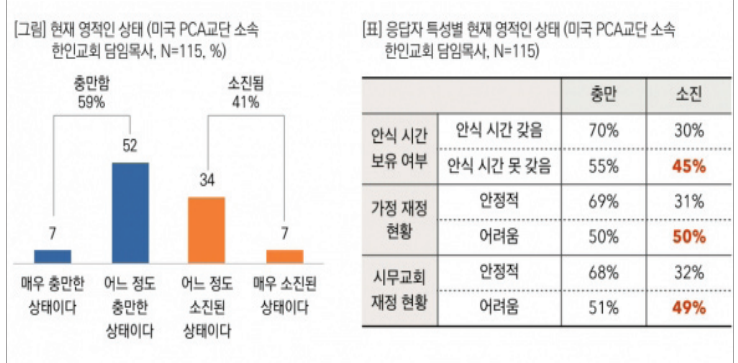
석됐다.

한인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도 대체로 비관적이었다. 응답자의 69%는 “10년 뒤 한인교회가 쇠퇴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낙관적인 전망보다 위기의식이 훨씬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목회에서 중점을 두고 싶은 사역 대상 세대를 묻는 질문에서는 미국 한인교회 목회자의 47%가 ‘모든 세대를 비슷하게’ 돌보겠

명 중 1명은 외로움을 겪고 있는 현실은 목회자의 정서적·영적 위기가 더 이상 개인의 인내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정기적인 안식 시간을 갖지 못하거나 교회와 가정의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에게서 소진 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목회자의 번아웃을 단순히 영성 부족이나 자기관



다고 응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한국교회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3040세대’를 가장 중점적으로 목회하겠다는 응답이 35%로 가장 높아 두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이번 조사 결과를 분석하며 목회자의 영적·정서적 위기를 개인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목데연은 “한인교회 목회자 41%가 영적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고, 3

리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교회 구조와 지원 체계의 문제로 함께 인식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개교회가 모든 책임을 담임목사 개인에게 집중시키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제언했다. 목데연은 “교회는 안식월과 휴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노화와 총회는 심과 회복 프로그램, 동료 목회자 모임, 멘토링과 상담, 중소형교회 재정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지동 기자

박해 양상의 네 가지 변화

→ 1면 기사 <박해는 국경을 넘고>에 이어서

2026년 ICC가 발표한 글로벌 박해 지수는 박해의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춘다.

과거 기독교 박해는 비교적 분명한 형태를 띠었다. 교회를 폐쇄하고 목회자를 체포하며 성경을 압수하거나 예배를 금지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ICC는 올해 보고서에서 권위주의 정부들이 국경을 넘어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로 꼽는다. 해외로 이주한 목회자와 망명신자, 해외 교회 공동체까지 감시와 압박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ICC는 이를 ‘초국가적 탄압’(Transnational Repression)이라고 설명한다.

ICC는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가정교회를 단속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중국인 기독교인과 목회자, 종교 자유 활동가들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고 분석한다.

두 번째 변화는 기술이 새로운 통제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 기술이 종교 탄압의 양상을 바꾸고 있다. 과거에는 예배당을 폐쇄하면 공동체 활동이 위축됐지만, 온라인 예배와 메신저, SNS를 활용한 신앙 활동이 늘어나자 일부 국가들은 이를 새로운 감시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

안면인식 기술, CCTV, 온라인 검열, 디지털 데이터 분석 등은 단순한 치안 기술을 넘어 종교 활동을 추적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세 번째 변화는 폭력보다 법을 활용한 통제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ICC는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법과 제도를 통한 박해에도 주목한다. 인도의 개종금지법,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 중국의 종교 규제, 니카

라과의 종교단체 통제 정책 등은 종교 활동을 제한하는 법적 장치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비교된다.

네 번째 변화는 박해의 중심축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국제사회는 중동을 기독교 박해의 중심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무장세력 공격, 남아시아의 종교 민족주의, 동아시아의 국가 통제, 중남미 일부 국가의 권위주의적 종교 규제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박해 양상이 훨씬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박해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구조 변화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중국의 초국가적 탄압, 인도의 종교 민족주의, 나이지리아의 무장세력 폭력,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은 모두 종교의 자유가 정치·법률·기술과 결합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DU 전문
리모델링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Solar
&
Roof**

**집수리
일체**

“26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바로** 상담해 보세요”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 Kitchen팀, Bathroom팀, ADU 전문, Roofing팀, Solar 설치팀, 마루시공팀, Carpentry팀, 전기팀, Plumbing팀, Window팀, Concrete Stucco팀, 철공팀, 페인팅전문팀, 디자인설계팀
- (하청없이 **완전 전문가 Crew로 구성**)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www.kurbanbuilders.com
www.en.kurbanlike.com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K-Urban Builders**
K-Urban Like CSLB # 854389

**견적
상담**

213-310-1800

LA

2621 W. Olympic Blvd. # 206
Los Angeles, CA 90006

**견적
상담**

213-798-22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Show Room

구봉주 칼럼

선 넘다



구 봉 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언제부터인가 한국인들 사이에서 ‘선을 넘는다’는 표현을 마치 관용구처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을 넘는다는 것은 언행이 도를 넘어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준다는 다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와 농담을 주고받을 때 가정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선을 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선을 넘는다’는 표현과 더불어 “가족은 건드리는데 아니지”라는 말도 유행하곤 했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관계일수록, 또는 가까워져가는 관계일수록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반응하는 성향이 다를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도 반응이 달

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과 상황을 센스 있게 잘 파악하는 것이며,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행을 갖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의 믿음의 형제자매는 하나님을 믿는 같은 믿음과 성령께서 허락하신 친밀감으로 맺어진 관계이기에 가족보다 더 가깝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켜야 할 선이 불분명해질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라면 이해하고 덮어주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선을 넘은 것을 선넘었다고 말하지 못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이해해 줄 것이라는 신뢰 때문에 자신이 선을 넘었다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일 때에는 다른 어느 때보다 더욱 깍듯하고 예의 바르게 대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반말을 하거나 친한 친구처럼, 혹은 언니·동생, 형·동생으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직분을 붙여 부르고, 존댓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을 넘어야 하거나, 선을 넘는 것을 허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들을 때, 혹은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을 전해 받을 때입니다.

최근에 원로목사님을 찾아 뵙고 함께 식사하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대화 중에 목사

님께서는 일본 선교를 위해 일본어를 배우시고, 일본 목회자들의 고충을 깊이 고민하며 세미나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을 넘는 시대
지켜야 할 선
호려지는 선
넘어야 할 선
복음을 위한 선 넘기

그때 목사님께서 일본 목회자들이 서로를 지나치게 깍듯이 존중하는 문화 때문에 전해야 할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심기를 건드릴까 염려하여 전도하지 못하는 모습을 깨우치기 위해 ‘선을 넘다’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말씀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주님께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사실 주님께서 여인에게 건네신 말씀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말씀이었습니다. 여러

번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에게 사실상 “너는 다섯 남편에게 버림받았고, 지금은 남편도 아닌 사람과 함께 살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신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결국 여인의 마음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여인이 주님을 영접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선 넘는 것을 무조건 허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관계에는 상처만 남습니다. 그러나 선을 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할 때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입니다. 또한 우리는 선을 넘는 것을 마땅히 용납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조차 자신의 선에만 민감한 사람은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이거나, 말씀 이면에 서 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상대방에게 다가가기 어려운 정도로 높은 수준의 예의를 요구하는 개인 중심의 사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상대를 배려하여 선을 넘지 않는 건강한 사회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어려운 사회가 되어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선을 지키길 줄도 알고, 또한 넘어야 할 때에는 담대히 넘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강태광 칼럼

C.S 루이스에게 배우는 그리스도인 처신



강 태 광 목사
월드쉐어 USA

최근 어느 모임에서 존경하는 장로님과 대화를 나눴다. 장로님께서는 최근 섬기는 단체 상황과 자기 선택 이유를 설명하셨다. 요약하면 진로를 수정하게 되었고 신뢰하기 어렵고 신앙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과는 단절을 선택했다며 양해를 부탁하셨다. 신뢰할 수 없고 함께 어려운 사람과 단절을 결단하며 적잖은 아픔이 있었음을 나누셨다.

대화 중에 우리는 좁은 이민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중한 처신의 필요성을 나눴다. 맘에 안 드는 사람은 모두 단절하기도

어렵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기준과 경계를 허물기도 어렵다는 데 공감했다. 한동안 장로님과의 대화가 머리에 맴돌아 그리스도인 처신에 관해 숙고할 기회가 되었다.

그리스도인 처신에 관해 생각하다 C.S. 루이스를 생각했다. 그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요 탁월한 작가였다. 그는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과 숙고가 묻어나는 깊이 있는 글을 많이 남겼다. 1963년 11월에 사망한 그의 글이 현대인의 삶에도 적확(的確)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이 경이롭다.

C.S. 루이스는 〈시편 사색〉에서 그리스도인의 처신에 대한 글을 남겼다. 〈시편 사색〉에서 C.S. 루이스가 전하는 그리스도인 관계 설정의 기준을 정리해 본다.

루이스는 “그리스도인이려면 포악하거나 음란하거나 잔인하거나 부정직하거나 심보 사나운 사람들과는 무례를 범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만남을 피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한다.

루이스는 무례를 범하지 않는 선(線)을 지키는 소극적인 단절을 추천한다. 이어지는 그의 설명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

훈이 된다. 그는 우리가 그런 사람과 함께 지낼 수 없을 만큼 “너무 선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런 사람과 함께 지내도 될 만큼 충분하게 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악한 사람들이 주는 유혹과 영향

단절을 결심한 이유
악한 영향력을 경계하라
선한 사람과 동행하십시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라

력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어렵다는 말이다. 그가 말하는 소극적 단절의 이유들을 거칠게 정리하면....

우선, 악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연약함이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그들이 품은 악의 영향력을 감당할 수 없다고 루이스는 주장한다. 음란, 포악, 그리고 잔인함 등이 주는 파괴적이고 부정적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 약함은 이런 악한 영향력을 견디기 어렵다.

둘째 루이스는 함께함으로 받는 압력과 영향력을 강조한다. 악인과 함께하는 동안 우

리는 그들로부터 그들과 그들의 삶을 묵과하고 묵인하라는 유혹과 압력을 받는단다.

루이스에 의하면 ‘말과 표정과 웃음’이 유혹이요 압력이다. 그러므로 선하고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최선을 다해 선한 사람, 선한 동기와 높은 이상을 가진 사람을 만나 교제해야 한다.

셋째 그리스도인이 악인과 함께하는 모습이 악인들에게 크레딧을 줄 수 있다. 초신자나 분별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에게 악한 사람에 대한 무장해제를 돕는 행위가 될 수 있어 악인을 신뢰하게 할 수 있고, 악한 자들이 품은 악에 대한 경계와 기준을 허물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 성숙하고 깨끗한 삶을 사모해야 한다.

유대인 사상가 조슈아 헤셀은 “더 큰 삶을 품지 않으면 진부하고 천박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한다. 우리가 악하고 악하기에 선하고 거룩하고 신실한 친구가 필요하다. 구약 잠언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잠13:20)”라고 가르친다.

2026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정회원
- 기독교회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for the Church

www.mbtls.edu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M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 ks@mbts.edu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의 새로운 이름

SINCE 1977

* 전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가능 *

- 1977년 설립된 이후 지켜온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미래지향적 교육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최첨단 효율적인 온, 오프라인, 블렌디드 교육 플랫폼 제공
- 과정에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 (학사, 석사, 박사)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a.edu | 입학문의 562.926.1023 (ext 300)

15605 Carmenti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a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증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Universit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li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1 aarahello@gmail.com

전화 1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Th.M 신학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 (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

제 5 차

21인 차세대목회자 초청으로

OC영적대각성
새벽기도회

및 차세대목회자 세미나

REIGNITE!

다시 타오르는 영적 부흥의 불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 사도행전 1:8

 김영선 목사 못별교회	 이승필 목사 새로운교회	 김한요 목사 베델교회	 한승현 목사 엑츠글로벌교회	 이상명 총장 CPU	 김종국 총장 예반젤리아대학	 한기홍 목사 은혜한인교회
 최영정 목사 임마누엘침례교회	 이병구 목사 그레이스신학교 부총장	 제임스리(이승현) ITS신학대학원 총장	 이원준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정기정 목사 샘물교회	 임금빈 목사 LA주소망교회	 김석훈 목사 미주영광교회
 강정운 목사 더섬기는교회	 최윤정 목사 월드미션신학교 부총장	 전우진 목사 더힐교회	 피세원 목사 더블레싱교회	 김지연 목사 원웨이교회	 황성남 목사 질그릇교회	 허연행 목사 프라미스교회

제5차 차세대목회자 초청 OC영적대각성 새벽기도회

■ 일 시 : 2026년 7월 27일(월) ~ 8월 19일(수)
주일 제외한 주중 오전 5시 30분, 토요일 오전 6시

■ 장 소 : 갈보리선교교회 (담임 심상은 목사)
8700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0


최국현 목사
BP임마누엘교회 담임
OC교협 회장 심상은 목사 갈보리선교교회 담임 OC교협 이사장 | 이창남 목사 주님의손길교회 OC교협 총무이사 |

3050 차세대 목회자 세미나

■ 일 시 : 2026년 8월 20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 장 소 : 은혜한인교회 2층 친교실 (담임 한기홍 목사)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 참가대상 : 3050목회자 및 부교역자 선착순 100명

■ 문 의 : (714) 336-0520 총무 이사야 목사

■ 등록마감 : 추후 발표, 등록비 없음 (후원으로 대체됨)


최규남 총장
그레이스미션대학 임성진 총장 월드미션대학 | 허연행 목사 뉴욕 프라미스 교회 뉴욕교협 51대회장 | 한기홍 목사 은혜한인교회 OC교협 증경회장 |

세계 최초 역노화(Reverse Aging) 기술! 1년 안에 10년 이상 젊어지는 놀라운 기술력! 이제 **북미**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장수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TeloYouth
생명을 살리고, 건강을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비즈니스
캘리포니아에서 시작하여 뉴욕으로 확장!
이제 북미 시장을 함께 개척할 리더와 사업가를 찾습니다.

왜 TeloYouth인가?

세계 최초 세포신호(Cell Signaling) 기술 기반 젊음 회복 프로그램

- ✓ FTE(부화수정란 추출물) 100년의 역사
- ✓ 100만 명 이상 젊음 회복 프로그램 경험
- ✓ 수천 건의 놀라운 체험 사례와 객관적인 의료 데이터
- ✓ 12가지 국제 품질 인증
- ✓ 6가지 임상 연구
- ✓ 12개월 머니백 개런티
- ✓ 91% 재구매율

건강 회복과 삶의 질 향상

수많은 사람들이 젊음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 혈당 및 혈압 관리
- 콜레스테롤 관리
- 에너지 및 활력 증진
- 기억력 및 인지기능 향상
- 수면의 질 향상
- 면역력 강화
- 장 건강 개선
- 간 건강 및 신장 건강 관리
- 전립선 건강
- 관절 및 근육 건강
- 근력 및 운동 능력 향상
- 스트레스 관리
- 건강한 체중 관리
- 신진대사 활성화
- 만성 피로 감소
- 삶의 질 향상

6가지 임상 연구

- ✓ 코티솔(스트레스 호르몬) 감소
- ✓ 우울감 개선
- ✓ 근력 향상
- ✓ 성기능 만족도 향상
- ✓ 줄기세포 활성화 및 생산 증가
- ✓ 인지기능 향상



LA, NY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줄기세포 비즈니스 기회

AI 혁명에 이어 이제는 **장수혁명 시대**입니다.
건강 산업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가장 빠르게 성장**할 거대한 시장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된 TeloYouth는 뉴욕으로 확장되었고,
이제 **북미 시장을 선점할 리더**를 찾고 있습니다.
먼저 보는 사람이 기회를 잡습니다.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시장을 선점합니다.
지금이 북미 시장의 **골든 타임**입니다.

NY 디모스연회장

LA 가든스윙트호텔

사람을 살리는 사업
건강을 나누는 사업
미래를 만드는 사업

건강과 경제적 자유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기회!
목회자, 사업가, 전문직, 리더, 은퇴자,
그리고 더 큰 비전을 꿈꾸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문의

Paul Kim
Chief Coa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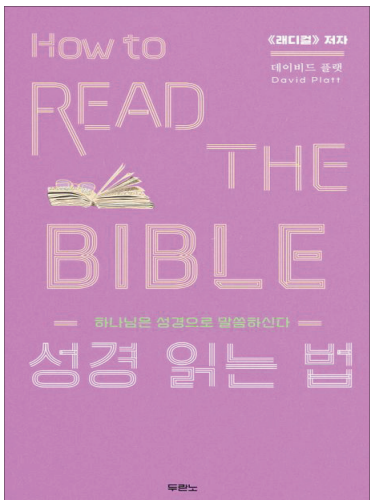
레이첼 코치

☎ 714-732-8477
www.telohealing.com
www.teloyouth.com
www.teloyouthkorean.com
☎ 714-851-8035

“생명을 살리는 사업, 장수혁명을 이끄는 비전, 이제 북미에서 시작됩니다!”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새해 앞두고, 다시 성경 읽기 도전하기 전에

‘래디컬’ 데이비드 플랫의 성경 읽기법 제안: MAPS



성경 읽는 법

데이비드 플랫 | 윤종석 역
두란노 | 136쪽

오랜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성경이 낯선 이들,

두꺼운 성경,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지 막막한 이들,

오늘, 말씀 앞에 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복잡하고 고달픈
세상 속에서 깨진 관계,
덧없는 쾌락, 불안,
낙심으로 지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래된
새 길을 제시한다

바로,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을 읽는 것이다

당장 성경을 펴고 싶어지게
하는 성경 읽기 매뉴얼!

우리, 이제 성경을 읽자!

그리스도인은 성경 읽기를 포기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의 양은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목자이신 그리스도는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래디컬』의 저자로 잘 알려진 데이비드 플랫은 ‘하나님은 성경으로 말씀하신다’는 부제를 단 짧은 소책자 『성경 읽는 법: How to Read the Bible』을 통해, 어떻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비교적 최근엔 예수비전교회도 지원 목사가 『성경 읽기와 묵상의 즐거움』이라는 책으로 이 주제를 명쾌하게 다뤘는데(아가페출판사, 2024), 플랫은 국내 알려진 『래디컬』과 『카운터 컬처』, 『복음이 울다』 등에서 드러난 넘치는 열정과 하나님 말씀에 관한 진지한 태도를 담아, 독자에게 성경을 귀하게 여기며 즐겨워하라고 간청한다.

“성경은 당신을 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한없이 소중한 보화다. 그 사실을 당신에게 보여 주기 위해 이 책을 썼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을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을 즐겨워하도록 지어졌다. 이 즐거움을 맛보는 법을 알려주고 싶다(12쪽).”

저자 플랫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성경 읽기를 지루해하는 이유가 있다고 밝힌다. 그들은 성경이 어떻게 자기 삶에 적용되는지 모르고, 어떻게 읽어야 할지 방법을 모른다. 어떤 사람은 성경이 참인지 확신을 못 해서 진지하게 성경을 대하지 못한다.

저자는 성경을 잘못 읽는 대표적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느낌대로 골라 읽는 정서적 접근법,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것만 찾는 실용적 접근법, 문자 배후에 숨겨진 뜻을 억지로 찾아내려는 영적 접근법, 개인적으로 와 닿는 느낌을 곁들기식으로 찾으려 하는 피상적 접근법 등이 바로 그것이다.

플랫은 성경이 믿을 수 있는 이

유를 객관적 증거를 들어 설명하고, 풍부한 성경의 맛을 느껴본다면 성경 읽기를 갈망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다양한 방식의 잘못된 성경 읽기가 왜 문제인지도 조목조목 설명한다.

그러면 이 책이 말하는 올바른 성경 읽기 방식은 무엇인가? ‘MAPS’라는 머리글자로 이 방식을 설명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M(Meditate & Memorize): 묵상하고 암송하라, A(Apply): 적용하라, P(Pray): 기도하라, S(Share): 나누라 등이다. 책 나머지 부분은 각 단계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묵상하고 암송하라’에서 저자는 성경 해석의 기본 질문들과 관찰해야 할 대상들을 간략하지만 알차게 정리했다. 저자는 본문을 단순히 연구하며 분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왜 그분이 필요하며 그분을 어떻게 따를 것인지 배우기 위해 관찰하고 묵상해야 한다는 중요 원칙을 제시한다.

두 번째 단계인 적용을 ‘설명’할 땐, 우리 삶의 여러 층위(layers)를 바깥부터 목적, 관계, 의지, 갈망, 생각, 마음으로 나눠 안에서부터 심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본문이 변화시키는 마음, 생각, 갈망, 행동, 의지, 관계, 목적 순으로 성경을 삶에 넓고 깊게 적용하라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인 기도에서는 PRAY(기도)라는 머리글자에 따라 각각 P(Praise): 찬양하라, R(Repent): 회개하라, A(Ask): 구하라, Y(Yield): 의탁하라 등으로 나눠 설명하는데, 본문을 읽고 그것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선을 위한 간구를 드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권한다. 성경 읽기가 성경 기도로 이어지는 것이다.



▲저자 데이비드 플랫 목사의 저서 소개 영상. ©유튜브

마지막 단계인 ‘나누라’에서는 성경 묵상을 기록하거나 다른 이에게 나눌 것을 권한다. 진리는 나눌수록 더 기쁨과 만족이 배가된다. 부록에서는 ‘장르별로 성경 읽는 법’이 수록돼 있는데, 성경을 10가지 장르로 구분해, 읽을 때 특별히 유의하거나 유념해야 할 것을 명쾌하게 정리했다.

각 장은 ‘기도하기, 마음 다해’라는 짧은 대목을 통하여 기도하며 이 책을 읽도록 돕고, ‘묻고, 답하기, 진실하게’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질문을 제공, 책을 함께 읽으며 성경 읽기에 도전하는 이들이 나눌 수 있는 풍성한 소재를 제공한다.

이 책은 성경 읽기에 도전하는 모든 성도에게 권할 만 하다. 기독교에 입문한 이들이 성경을 처음 접

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할 때, 곁에서 도와주면서 같이 읽거나 그들에게 선물하기에도 좋은 책이라고 생각한다.

플랫은 맺음말을 ‘우리 삶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한다. 그렇다.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읽기를 원하며 끝처럼 달게 여기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경이 우리 삶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사랑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다.

매년 혹은 매번 시도하는 성경 읽기가 이 책을 통해 더욱 즐겁고 유익하며 또 귀중한 성경의 맛을 보는 법을 배우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구한다.

서상진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언도 폐하 않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 하리라

고린도 전서 13:8

龍水山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생생 투근 설렁탕

48시간 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의 맛!

GOOD MORNING
SPECIAL
EVERYDAY
7AM ~ 10AM

표고우거지해장국
\$10.96 +tax

굿모닝스페셜

통근설렁탕
\$10.96 +tax

북어국
\$10.96 +tax

간기가
좋아질
때까지!

주문시 “서민행복”으로 오더해주세요.

5주년 기념 투근스페셜
설렁탕 \$10.99
설렁탕, 백미, 김치, 학두기
10AM ~ 2PM

시니어를 위한 ‘여름철 보양식’
삼계탕 스페셜
\$19.95 Reg. → \$14.99 +tax
7월 1일 ~ 8월 31일

*광고에 쓰인 음식 사진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단/체/주/문 환영
주 7일 오픈 7AM ~ 10PM
(구)베버리순두부 자리
Uber Eats 딜리버리 합니다.

(213)277-1339 | (213)263-9446
2717 W. Olympic Blvd. #108, Los Angeles, CA 90006

[서성록, 한 점의 그림] 브루스 허먼, 폐허 속에서 피어난 아름다움

아름다움 없이 인간은 반인간적, 결국 멸망할 수밖에

예술과 철학 깊은 이해 바탕으로
기독교 신앙과 현대 미술 연결해
폐허 속 아름다움, 작품 세계 관통
현실 직면하면서 희망의 빛 포착

진실과 선행 설 자리를 잃었을 때
아름다움, 어둠 건질 유력한 통로
최고 아름다움, 가장 추악한 순간
그리스도중심 ‘고통속아름다움’

브루스 허먼(Bruce Herman)은 예술과 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기독교 신앙과 현대 미술을 연결하는 작업을 지속해 왔다. 그는 현대 기독교 미술의 성격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유의미한 과제를 던지는 작가이다. 초기작 ‘뮤즈’(1979)는 그의 작업 방향을 예고한다. 서양미술사에서 ‘뮤즈’란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존재를 뜻하지만, 허먼의 ‘뮤즈’는 이러한 관념을 거부한다. 그에게 뮤즈는 우아한 선망의 대상이 아니라, 고뇌하고 씨름하며 때로는 침묵하는 실존적 형상으로 그려진다. 세 명의 뮤즈가 악기를 연주하는 탁자 밑에서 한 인간이 신음하고 있는 모습은, 세상 고통을 외면한 채 여흥에 빠진 예술적 태도에 대한 비판이다. 이는 세상에 초연했던 당대 미술가들을 뮤즈에 빚대 표현한 것으로 짐작된다. 허먼은 예술적 영감이 안락한 평화가 아닌, 인간의 고통과 존재론적 질문 속에서 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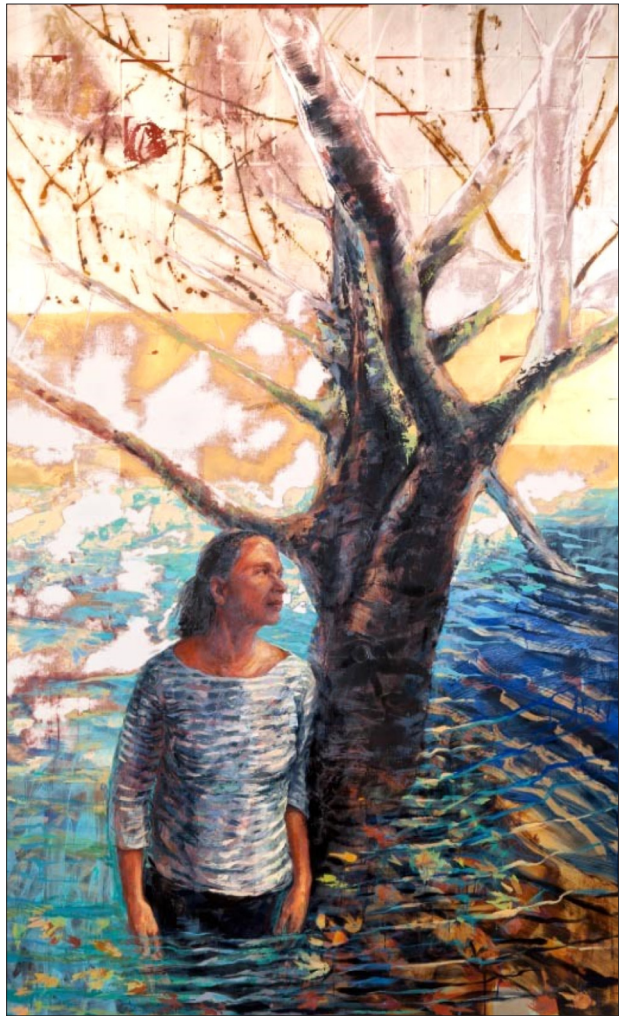
올려지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의 예술을 관통하는 ‘폐허 속 아름다움’(Beauty in the Ruins)’이라는 주제는 그의 예술적 비전을 함축한다. 그는 파괴·고통·상실이라는 현실을 회피하지 않으면서도, 그 폐허 속에서 피어나는 구속(redemption)과 희망의 빛을 포착한다. 전쟁과 전염병, 인종차별 같은 구조적 악이 윤행하는 시대에 ‘진실’과 ‘선행’은 종종 시대착오적 용어로 치부되곤 한다. 그러나 허먼은 야만의 시대일수록 아름다움이 더욱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진실과 선행이 설 자리를 잃었을 때, 아름다움은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낼 유력한 통로가 된다. “아름다움 없이 인간은 반인간적이 되며,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핵심 요지이다. 오늘날 우리는 ‘아름다움’이라는 단어에서 초월적 실재를 떠올리기보다, 화장품이나 사치품을 먼저 연상한다. 한때 아름다움은 진리, 선행과 함께 숭고한 가치로 존중받았으나, 이제는 그 본질이 심각하게 변질되었다. 허먼은 이렇게 남용되는 아름다움을 ‘망명 중인 상태’로 정의한다. 그는 인류 역사가 늘 고통 속에 있었음을 상기시키며, 아름다움이 고통 없는 낙원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폐허와 재난의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빛나고 있음을 역설한다. 이러한 발상은 인간의 죄와 세상의 깨어짐 속에서도 내재된 신성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려는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비롯

되었다. 이는 17세기 네덜란드의 얀 반 호이언, 야곱 루이스 달, 그리고 19세기 반 고흐 등 개신교 전통 화가들에게서 나타나는 예술적 특성이기도 하다. ‘분회퍼를 위한 애가(Elegy for Bonhoeffer, 2002)’는 나치 저항 운동가였던 디트리히 분회퍼(Dietrich Bonhoeffer) 목사에게 바치는 오마주이다. 불의에 맞서 순교한 삶에 대한 존경을 담은 이 작품은, 단순한 인물화를 넘어 분회퍼가 겪은 고난과 영적 고통을 형상화한다. 거꾸로 매달린 자세나 뜯겨 나간 듯한 살점 묘사는 그가 직면했던 시련의 깊이를 짐작하게 한다. 어둡고 고통스러운 색채와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는 분회퍼의 윤리적 딜레마와 순교의 무게를 시각적으로 전달한다. 허먼은 분회퍼를 ‘타인을 위한 사람(Man for Others)’이었던 그리스도의 제자로 조명하며, 배제와 분열의 시대에 희생과 겸손의 삶이 지닌 가치를 일깨운다. ‘그의 채찍질과 함께



▲브루스 허먼, ‘분회퍼를 위한 애가(Elegy for Bonhoeffer)’. ©bruceherman.com

하시디즘의 목표는 바로 그 ‘불꽃을 들어 올려’ 하나님께 되돌려 보내는 것, 즉 평범한 일상을 성화(hallowing)하는 것이다. 이는 기독교적 표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맥을 같이 하지만, 일상의 모든 사물을 거룩하게 만드는 실천의 중심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해석적 가치를 지닌다(Bruce Herman, Makers by Nature, IVP, 2025, 179쪽). 허먼은 캔버스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이 사명을 수행한다. 그는 캔버스를 굽어내고 다시 뒀는 고된 과정을 통해, 상처 입은 세상의 표면 아래 숨겨진 ‘거룩한 불꽃’을 끄집어낸다. 부버가 강조한 ‘일상’, 즉 평범함 속의 흔한 기적은 허먼에게 있어 예술이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방향이 되었다. 그의 예술론은 냉철한 현실론에 입각해 있다. 타락한 세상에서 진실을 말하거나 선행을 구현하려면 예쁜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아름다움을 잠재적으로 온전하고 신성한 것으로 인식하되, 그러나 폐허 속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이해하는 복합적인 관점을 견지했다.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서 보듯,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름다움은 역설적으로 가장 끔찍하고 추악한 순간에 나타난다고 믿는다. 이에 따라 그리스도를 우주 역사의 축으로 삼아 ‘고통 속의 아름다움’이라는 역설을 추적하는데 전념하고 있다. 서성록 명예교수(안동대 미술학과)



▲브루스 허먼, ‘사중주 3번, 가을’. ©bruceherman.com

“

사역자는 있는데,
사역할 차량이 없습니다”

+

당신의 차량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갑니다.



복음의 길을 열어줍니다
교회, 선교지, 캠퍼스,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됩니다.



사역자를 연결합니다
예배자, 아이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사랑의 자리로 연결합니다.



복음의 지경을 넓힙니다
국내외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됩니다.



당신의 믿음을 남깁니다
후대에 남겨질 믿음의 유산, 하나님의 일에 사용됩니다.

당신의 차량기부가
복음의 여정이 됩니다!

남아도, 오래되어도 괜찮습니다.
운행이 어려워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선교지 이동



캠퍼스·청소년 사역



지역사회 섬김



교회 및 기관 사역



차량도네이션

문의 및 신청
☎ 213-434-1170
chdailya@gmail.com

주관: 기독일보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한국VOM “러, 美 어린이 전도협회 ‘활동 금지’ 지정”

어린이전도협회CEF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 명단에 추가
박태연 선교사 최대 17년의 징역형 가능성

러시아 정부가 미국 어린이 전도협회(CEF)를 공식 활동이 금지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로 지정하면서, 현재 구금 중인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소속 박태연 선교사의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순교자의소리(한국VOM, 대표 현숙 폴리)는 러시아 검찰총장실의 결정에 따라 미국 어린이 전도협회를 현지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 명단에 추가하는 러시아 연방 법무부 명령(제1000-r호)이 공식 발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숙 폴리 대표는 “이번 명령서



러시아에 억류된 박태연 선교사 © 한국VOM

에 구체적인 지정 사유는 명시되지 않았다”면서도 “러시아 당국이 특정 단체를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로 지정하면 해당 기관의 프로그램 운영과 자료 배포가 전면 금지될 뿐만 아니라, 단순한 자료 보관이나

지금 송금 행위조차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현지 사역자들의 법적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가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의 어린이 전도협회 지부에도 직접 적용되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그러나 폴리 대표는 “그간 러시아 정부의 유사 전례들을 볼 때 금지 조치가 광범위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커, 러시아 내 모든 어린이 전도협회 지부와 소속 직원들이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러시아 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기독교 단체’ 목록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VOM에 따르면, 더욱 긴장되는 이유는 현재 러시아 하바롭스크에 구금 중인 박태연 선교사의 재판

일정 때문이다. 박 선교사는 이민법 위반 관련 3건의 혐의로 7월 28일부터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며, 재판 결과에 따라 최대 1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

한국VOM 측은 박 선교사의 기소장에 어린이 전도협회가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재판 일정이 계속 지연된 배경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수사 당국이 박 선교사 사건을 빌미로 현지 오순절파 등 ‘러시아 복음주의 기독교 연합’을 비롯한 다른 기독교 단체들을 전방위로 압박·사법적 정보를 수집하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소속으로 1993년 러시아에 입국해, 극동 최대 도시 하바롭스크에서 어린이 사역을 이어온 박태연 선교사는 올해 70세 정년을 맞아 한국 귀국을 준비하던 중 지난 1월 기습 체포됐으

며 그가 운영 하던 시설은 러시아 당국에 의해 해산됐다.

박 선교사는 러시아 당국의 구금 조치로 인해 발생한 비자 체류 기간 초과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등 불합리한 사법 절차를 겪어왔다.

이에 한국VOM은 지난 2월부터 국내외 온·오프라인 구명 청원 운동을 전개해 한국을 비롯한 미국, 우크라이나, 일본 등 전 세계에서 5,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냈다.

지난 4월에는 현숙 폴리 대표와 에릭 폴리 목사가 서울 주한 러시아 대사관을 직접 방문해 박 선교사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전달했으며, 해당 사본은 한국 외교부와 유엔(UN)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에도 전달된 상태다.

노형구 기자

英 교계, AI 시대 교회 사역 지침… “AI는 전문가 아냐”

영국 전역의 교회들이 인공지능(AI)을 보다 신중하고 의도적으로 활용하도록 돕기 위한 새로운 지침이 발표됐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가 보도했다.

AI 크리스천 파트너십(AI Christian Partnership, AICP)은 과학과 신앙 연구기관인 패러데이 과학·종교 연구소(The Faraday Institute for Science and Religion)와 공동으로 ‘기독교 사역을 위한 AI 지침(AI Guidelines for Christian Ministry)’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이 교회 사역에 가져올 기회와 위험을 균형 있게 살펴보고, 교회 지도자들이 AI 활용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AICP는 생성형 AI가 많은 교회에서 ‘조용히 도입되고 있다’며, 이번 지침은 챗GPT, 제미니AI, 코파일럿 등 생성형 AI를 설교 준비와 목회, 교회 행정 등에 활용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침은 AI 활용이 가져올 윤리적·목회적·실무적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일상적인 활용을 위한 권고사항과 각 교회가 자체적인 AI 운영 원칙을 마련할 수 있도록 참고할 수 있는 성명서 예시도 함께 제공한다. 비록 교회 지도자를 주된 대상으로 작성됐지만, 제시된



©Unsplash/Solen Feyissa

윤리 원칙과 실천적 권고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집필진은 밝혔다.

AICP 설립자인 크리스 고스와미(Chris Goswami)는 교회가 아무런 고민 없이 AI를 받아들이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는 사역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사역을 패스트푸드처럼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며 “소셜미디어와 마찬가지로 AI의 진정한 영향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깨닫게 될 수도 있는 만큼, 교회는 지금부터 이를 진지하게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지침은 올해 초 4개 교단 소속 교회들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됐으며, 영국 내 전문가들의 검토와 피드백을 반영해 최종 수정됐다.

보고서는 교회가 AI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행정 업무와 자료 조사, 번역, 창의적 작업 등에서는 AI가 유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부정확한 정보 생성, 비판적 사고의 약화, 개인정보 보호 문제, 영적 성숙 저해, 의미 있는 인간관계의 약화 등 다양한 위험성도 함께 경고했다.

특히 AI는 신체성을 지니지 않았고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없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목회 사역을 결코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회는 AI를 ‘전문가가 아

닌 인터넷처럼’ 대해야 한다며, AI가 생성한 모든 결과물은 반드시 사람이 검토해야 하고,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내기보다는 기존 작업을 점검하거나 개선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패러데이 연구소의 교회 협력 책임자이자 AICP 핵심팀 멤버인 루스 뱅체비츠(Ruth Bancewicz)는 “이번 지침은 그리스도인들이 AI를 책임감 있고 신중하게 활용하도록 돕는 의미 있는 자료”라고 평가했다. 그는 “AI를 숙고하며 책임 있게 접근하도록 권면한다는 점에서 이번 지침은 매우 환영할 만한 기여”라고 말했다.

AICP는 이번 자료가 지나치게 정책 중심이거나 학문적인 AI 윤리 논의와 단순한 조언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구성됐으며, 규모와 전통이 다른 다양한 교회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은 AI의 교회 사역 활용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발표됐다.

패러데이 연구소는 지난해 그레이엄 버드(Graham Budd)의 주도로 ‘인류를 위한 AI(AI for Humanity)’ 연구 허브를 출범시켜, AI 기술 발전이 인간의 존엄성과 관계, 영성 형성, 인간 존재의 본질에 미칠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

이 연구에는 신학자와 철학자,

심리학자, 컴퓨터 과학자들이 참여해 AI가 인간의 번영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바나(Barna)와 푸시페이(Pushpay)가 올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글쓰기와 소통, 콘텐츠 제작 등에 AI를 활용하고 있지만, AI 사용에 관한 공식적인 정책을 마련한 교회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는 표절 문제와 개인정보 보호, 설교의 진정성, 목회자와 성도 간 신뢰 약화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도 광범위하게 제기됐다.

AI를 둘러싼 이러한 문제는 기독교 사상가들 사이에서도 주요 논의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옥스퍼드대 수학자 존 레녹스는 지난 5월 런던에서 열린 기독교방송협의회(Christian Broadcasting Council) ‘리바이브 2026(Revive 2026)’ 콘퍼런스에서 의료와 성경번역 분야에서 AI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비판적 사고가 약화되고 사회 전체가 나타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허위정보와 딥페이크 확산으로 인해 사람들을 속일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미경 기자

Finance & Marketing
WISECALIFORNIA

2026 청소년 재정사관학교 썸머캠프

세상의 모든 아이 하버드는 다 못 보내도 백만장자로는 키울 수 있습니다

<청소년 재정사관학교>는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재정관 설립과 지혜로운 재정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재정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재정사관학교>를 통해 아이들에게 튼튼한 재정개념, 돈나무 한그루씩을 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클래스는 영어로 진행됩니다. 모든 프로그램에 보호자 참석을 환영합니다.

참가자 학생 2명을 선발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LOS ANGELES

8월 4일 (화) 10시~4시

WISE CALIFORNIA FINANCE

3435 WILSHIRE BLVD., 14FL
LA, CA 90010 (에퀴터빌빌딩)

IRVINE

8월 6일 (목) 10시~4시

얼바인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YouTube 문선영의 머니토크 PRESENT

<REGISTRATION FEE \$100>
REGISTER HERE!

626.827.9599

SYMOONMONEYTALK@GMAIL.COM

한국일보 THE KOREA TIMES

중앙일보

라디오서울

BMO

radioKOREA

Finance & Marketing
WISECALIFORNIA

THIS. IS.

RUACH.

The Voice — Praise Concert

Venue

The Novo
8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Dates

Sat. 8.01 — 6:30PM
Sun. 8.02 — 6:30PM

Tickets

\$50 & \$60
—
213.357.1565
562.766.9494

Pastors

강준민 목사 국윤권 목사
고창현 목사 박은성 목사
구봉주 목사 조셉리 목사

Special guests



소향



션

주최 주관 Loving Worship

대표 목사 Joseph Lee

Producer Troy Choi